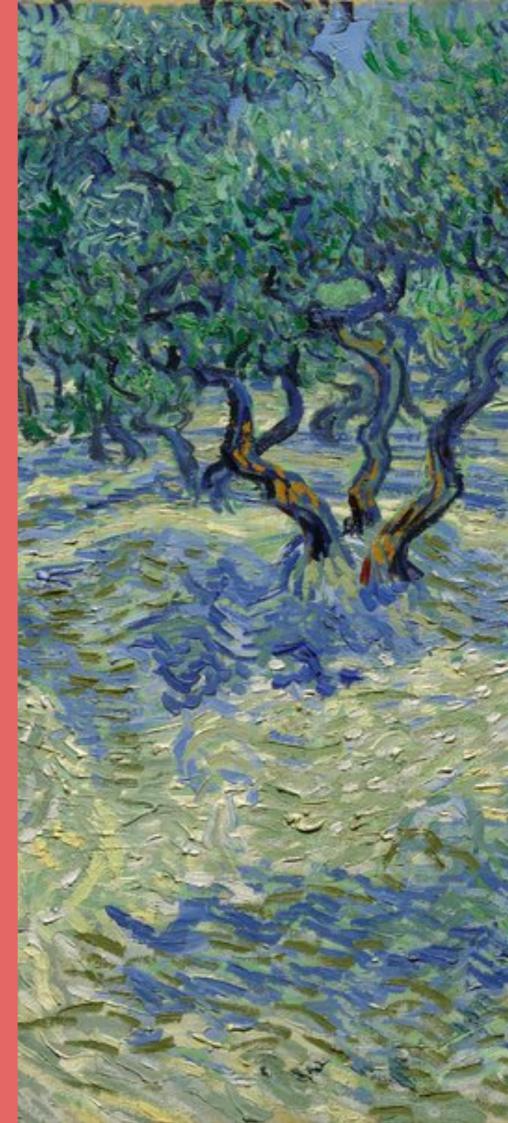
THE NEW YORK TIMES

NOV 08 / 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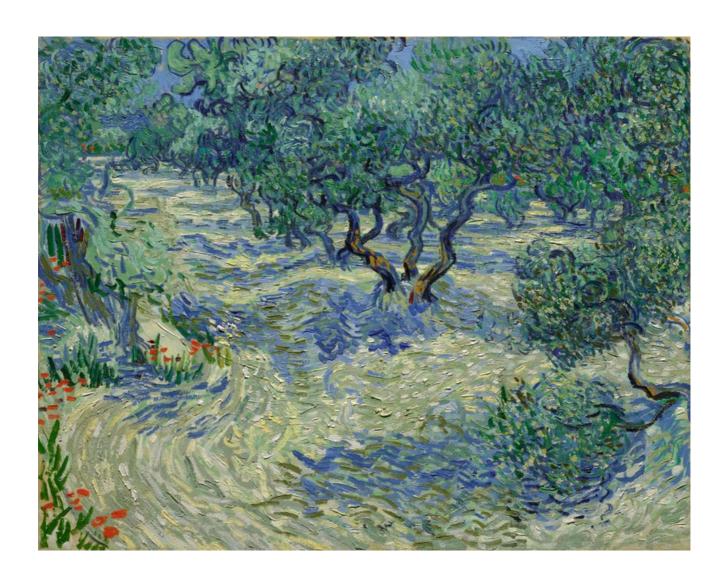
A Grasshopper Has Been Stuck in This van Gogh Painting for 128 Years

> 반 고흐 그림에 **128**년 동안 갇힌 메뚜기



A GRASSHOPPER HAS BEEN STUCK IN THIS VAN GOGH PAINTING FOR 128 YEARS

'반 고흐 그림에 128년 동안 갇힌 메뚜기'



A GRASSHOPPER WAS DISCOVERED IN THE THICK PAINT OF VINCENT VAN GOGH'S "OLIVE TREES" BY A CONSERVATOR AT THE NELSON-ATKINSMUSEUM OF ART IN KANSAS CITY, 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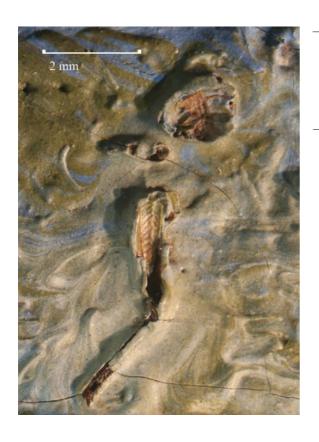
미국 캔자스 시티에 있는 넬슨-앳킨스 미술관 콘서베이터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올리브 나무'에서 메뚜기를 발견했다.

More than a century ago, a grasshopper found its way to art immortality.

한 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메뚜기는 미술을 통해 불사불멸의 신분을 얻었다.

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to examine 104 paintings, Mary Schafer, the museum's paintings conservator, noticed under magnification that there was an insect in the "lower foreground of the landscape" of "Olive Trees" that was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메리 쉐이퍼 콘서베이터가 진행하고 있던 리서치 프로젝트는 104개에 그림들을 유심 히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올리브 나무" 그림 안에 있는 하단 전경에서 곤충 을 발견한 것이다. 곤충의 흔적을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A CLOSE-UP OF THE GRASSHOPPER IN A MAGNIFIED IMAGE PROVIDED BY THE MUSEUM.

THE NELSON-ATKINS MUSEUM OF

클로즈업 뷰

"It is not unusual to find insects or plant material in a painting that was completed outdoors," Ms. Schafer said in a statement. "But in this case, we were curious if the grasshopper could be used to identify the particular season in which this work was painted."

"야외에서 그린 그림들 중에서 곤충이나 식물 재료 등을 찾는 것은 아주 드물지는 않다" 라고 쉐이퍼는 전했다. "하지만 메뚜기를 통해 고흐가 어떤 계절에 '올리브 나무' 그림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The museum reached out to Dr. Michael S. Engel, a professor of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at the University of Kansas, who determined that the grasshopper was dead before it landed on van Gogh's canvas because there was no movement in the surrounding paint. Nothing further about the time of year that the painting was worked on could be determined.

미술관은 캔자스 주립대 생태학 및 진화 생물학 교수인 마이클 엥겔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엥겔 교수에 의하면 메뚜기는 고흐의 캔버스에 닿기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유 는 메뚜기 주변에 있는 물감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어느 시기 에 완성됐는지 알 수 없었다.

Van Gogh died in 1890, the year after he completed "Olive Trees." In 1885, van Gogh had described his frustration with working with landscapes outside in a letter to his brother, Theo: "But just go and sit outdoors, painting on the spot itself! Then all sorts of things like the following happen – I must have picked up a good hundred flies and more off the four canvases that you'll be getting, not to mention dust and sand."

고흐는 "올리브 나무" 를 완성시킨 그 다음 해 1890년에 영면하였다. 1885년 고흐가 형제인 테오에게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밖에 가서 앉아서 그림을 그렸더니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어. 아마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그림들 사이에 곤충 백 마리 이상은 그림에서 떼어냈을 꺼야. 먼지 하고 모래는 말 안해도 되겠지?"